

“전북 책임정당으로서 온 힘”

선거운동 첫 날 도내 민주당 지선 후보자들 “민생·경제 살리겠다” 한목소리 김관영 도지사 후보 “도민 삶 책임지는 일꾼 될 것”... 전라감영서 유세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북도민의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관영(전북도지사), 우범기(전주시장), 강갑준(군산시장), 정현을(익산시장), 이학수(정읍시장), 정성주(김제시장), 유희태(완주군수), 전준성(진안군수), 황의탁(무주군수), 최훈식(장수군수), 한병락(임실군수), 최기환(송창군수) 후보 등과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지역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6·1지방선거 첫날 도민에게 인사를 올린다”며 “매우 어려운 선

거이지만 민주당은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민주당의 부족한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독선과 검찰공화국을 막아낼 힘을 주시고 균형발전을 위해 진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여파와 무소속의 약진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무소속과 경쟁하지 않겠다. 내부의 무원칙과 온정주의의 싸워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내놓았다”면서 “민주당을 믿고 다시 한 번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전북에서 우리 민주당은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전북도정과 시정군정을 펼쳐야 하는

책임정당”이라며 “전북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마지막 후보가 돼야 한다. 우리 후보 모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저는 선거운동 기간 14개 시장·군수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나며 선거운동할 것이다”며 “전북도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 민생일꾼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민생선거,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다짐과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것임을 재차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을 마친 후보들과 민주당 도당 선대위는 전라감영에서 유세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14개 단체장과 광역후보들이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의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 낭산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하자 보수현장 방문

민주당 김윤덕 의원, 23일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오는 23일 심각한 지반 침하로 최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선 종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장, 호남본부장, 시설계획처장 등이 배석해 하자 보수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이 지반침하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

하고 철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년 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반침하 보수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본 결과 매우 미비한 공사 진행은 물론 보수공사가 진행된 구간마저도 지반침하 허용치인 30mm 넘는 수치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관계자들을 질타한 적이 있었다.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인 김 의원은

“지반 침하가 생긴 것도 문제고, 지반 침하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수공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뒤서는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보수현황 점검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수현장점검은 호남고속철도 3-1공구 종리교~원형교 하차보수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이 새정부 새시대 열어야”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역대급 예산폭탄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지역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선 조배숙 후보가 ‘역대급 예산폭탄으로 전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9일 전주역 출정식에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8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을 갈라치며 분열을 조장했던 정부가 물러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며 “경제발전, 균형발전, 공정발전, 혁신발전이라는 전북도정을 위한 저의 4가지 국정 목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수정당 후보 전북지역 최다득표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지지할 수 있다는 전북 민심의 기념비적인 변화였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철도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통한 농생명산업의 허브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민생 위한 정치교체”

정의당 전북도당, 선거운동 첫 날 “양당 견제 민생 위해 일할 정의당 후보 지지해 달라”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등 지자체장·지방의원 13명



오형수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등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9일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생을 위해 양당 말고 정의당으로 정치교체를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형수 도당위원장과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발부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무능한 거대 양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과 민생을 위해 일할 정의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대리전이 아니라 양당 정치의 벽을 깨고 다당제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전북이 처해있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정치를 갈아엎는 선거, 민주당 1당 독점을 타파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했다.

오형수 위원장은 “정의당 후보들은 지역을 바꾸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서윤근(전주시장) 후보와 최영

심(광역 전주시), 오현숙(광역 비례), 한승우(전주마), 이명주(전주 비례), 김수연(익산시), 유재원(익산시), 유재동(익산시), 권하늘(익산 비례), 정지숙(군산시), 김소영(군산 비례), 강운희(정읍 비례), 신명진(완주 비례) 후보 등 13명이 나선다. /유호상 기자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것” 김중식 전북도의회 의원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금품 제공 폭로를 경선 불복에 대한 정치공작 음해로 치부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 진흥·육성에 비수도권 우대 명시

민주당 김수홍 의원 산업집적법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하고 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현대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

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홍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출렁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지라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에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뿌리산업이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유호상 기자

김관영 도지사 후보 여성정책 간담회 가져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18일 전북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YWCA협의회·원불교 전북여성회 등과의 여성정책 간담회를 갖고 전국 하위권의 전북 여성의 지원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전북의 성 평등 지수는 2015년 중상위권에서 2016년도 상위권으로 상승 한후 2018년도 중하위권, 2020년도에는 하위권으로 하락했다”며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성 평등 통합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라북도는 복지여성보전국장이 양성평등정책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은 복지여성보전국 내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계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개방형의 전문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후보는 “여성 지위마저도 낮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제시한 제안은 밑도없게 검토해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6·1 지선 선거벽보, 오늘까지 도내 2601곳에 첩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601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작성하여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할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

관위를 거쳐 작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